

정부의 녹색정책에 의한 그린인프라와 지적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adastre and Green Infrastructure

이현숙¹⁾ · 차득기²⁾ · 이종민³⁾

Hyun Sook, Lee · Dek Kie, Tcha · Jong Min, Lee

¹⁾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연구원(E-mail : geojulie@naver.com)

²⁾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수석연구원(E-mail : tcha@kcsc.co.kr)

³⁾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연구원(E-mail : Ijm5078@nate.com)

Abstract

The "Gree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s classified as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reduction of fossil fuel use', the second is 'clean energy development' and the last is 'sustainable green property which has a continuous value in the use'. In this matter, this study provides how the green property concept include green infrastructure and how to link the green infrastructure to effective geo-spatial management by cadastr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green infrastructure is not a simple procedure, but definitely starts from the cadastre system. If the green policy includes sustainable way of land/marine use, the green cadastre is significant because of its possibilities to be used as a powerful implementation.

1. 서론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정책의 녹색 개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는 화석에너지 절감, 둘째로 천연 가스를 사용한 버스의 경우처럼 청정에너지의 사용 혹은 대체에너지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의 대체가 있다. 중요한 세번째로는 자산으로서의 지속가치를 갖는 '녹색자산'의 활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그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나, 녹색자산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이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가 여기에 해당된다(이근호외 2009).

본 연구는 현재 개인 및 기업차원의 에너지절감 등의 미시적인 녹색성장 정책보다는 정부부문에 의한 그린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적을 이용하여 선진국에서 각광받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2.1 그린인프라의 정의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란 자연자원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신조어로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자연생태가치와 기능의 보전과 연관된 인간의 이익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의 연결망을 말하는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틀(framework)을 말한다(Benedict and McMahon, 2002). 반면, 기존의 인프라는 대략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 도로, 하수도, 빌딩, 교량 등의 “회색 인프라(Gray Infrastructure)”로서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반시설이고 둘째, 인간정주와 관련된 병원, 학교, 감옥 등의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가 있다. 그동안 개발일변도로 진행되어 대지, 도로 등에 집중되어 관리된 도시계획정책에 비추어 그린인프라는 임야, 공원, 구거, 제방, 목장용지 등의 지목으로 등록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가치와 무관심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왔다. 그린인프라의 갑작스런 대두에는 그동안 현재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어왔던 녹색 자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가 나서서 녹색성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규정한 공간정보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의해 강조되었는데 이때의 그린인프라에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 제공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2.2 그린인프라의 구축

그린인프라의 구축에는 기존의 회색 인프라를 바꿔나가는 것과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나뉘어 질수 있다. 그 대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농촌 등으로 대변되는 생활환경인프라가 있고 그 관리대상의 최소단위로는 각각의 지목으로 관리되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토관리계획을 잘 반영한 도시계획, 환경을 감시하는 환경지킴이등의 역할에 국토공간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고 오차없이 제공하여 주는 지적을 잘 융합시킨다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그린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것이다.

3. 지적과 그린인프라

3.1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도입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결국 에너지소비의 효율성향상과 핵심기술의 원천적으로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는데,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도시계획 및 건설부문에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목표아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설 및 공간집약적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도입 : 직주근접을 고려한 계획 및 고층 건설을 통한 녹지공간의 최대화 및 바람길 계획 등 지형을 이용한 공간의 활성화
- ②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확충 등
- ③ 신,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용한 에너지 저감 및 재활용 방안 모색 :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권장 등

3.2 지적분야와의 접점

도시계획 분야의 녹색전략은 개발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청계천 사업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으로 많은 부분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련연구도 많고 다양해지게 되었다. 반면 이러한 추세와 지적분야와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지적공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녹색성장을 통한 효율경영을 목표로 삼는 현재에 와서도 그 세부추진계획이 명확하지 못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세부추진계획을 반면교사로 삼아 직주근접을 고려한 Compact city의 계획^①에서는 3차원 지적의 적극적인 활용을,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확충 방안^②에서는 지형을 고려한 선형분석이 가능한 GIS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개선을,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권장방안^③에서는 중수도 적지분석이나 자원순환시스템 설계와 같은 공간 정보 분석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된 지적연계정보서비스 사업화 등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자산, 즉 공간정보에 있어서 인간과 토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지적정보의 기틀과 함께 지목상 저개발을 이유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임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그린인프라의 핵심가치 즉, 도심의 섬과 같은 폐쇄된 녹지가 아닌 강과 산과 공원과 시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인간 삶의 질을 드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자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4. 결론

녹색정책 수립단계에 있어서 소유권 정보는 중요한 Key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목의 분류에 따른 토지이용(Land Use)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는 그린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적분야의 정책개발이 절실하며,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인간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정보의 제공 및 양질의 자료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은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게 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정책추진 중 쌓인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녹색기술 이전이 필요한 나라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녹색성장 국가전략, <http://www.greengrowth.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근호, 한호현., 2009,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 증가하는 녹색자산., <http://www.ebuzz.co.kr>,
 왕광익, 2010,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동향., 서울시 도시관리 창의 아카데미 교육
 Benedict M and McMahon E. T., 2002, Green Infrastructure : Smart Conservation for the 21th Century